

‘완벽’ 대신 ‘닥공’…KIA 김건국 ‘숙제를 풀다’

SSG전 4.1이닝 4피안타 2실점
공격적 피칭으로 선발 임무 완수
“후배들 위해 많은 이닝 던질 것”
이범호 감독 “6일 롯데전 고민”



KIA 투수 최고참 김건국의 도전은 계속된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1일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역전극을 펼치면서 3-2 승리를 거뒀다. 마무리 정해영이

경기를 마무리하는 아웃카운트를 잡아내자 김건국은 누구보다 밝은 표정으로 승리를 기뻐했다.

김건국은 이날 선발로 나와 4.1이닝 4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2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5회는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제임스 네일의 대체 선발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팀은 5회 2사 만루에서 나온 오선우의 2타점 적시타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7회 고종욱의 결승타로 3-2 승리를 거뒀다.

김건국이 최대한 마운드에서 버티주면서 이어 나온 최지민-전상현-조상우-정해영이 무실점으로 남은 이닝을 책임졌다.

김건국은 “공격적으로 승부하려고 했다. 완벽하게 던져야지만 타자들이 칠 수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공격적으로 들어갔더니 아웃이 되고 잘 풀어져 갔다. 최대한 많은 스트라이크로 상대를 잡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해결됐다”며 “아무리 야구를 오래 해도 어려운데 그 숙제를 풀 것 같다”고 말했다.

투수 최고참 김건국의 공격적인 피칭에는 후배들에 대한 마음도 있었다.

김건국은 “불펜들이 힘들어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생각이었다. 점수를 주더라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볼넷 안 주고 빠른 카운트 안에 잡아내자고 했는데 주효했다”며 “앞선 키움전 등판에서는 어설픔게 힘 빼고 던지면 안 될 것 같아서 1구부터 50구까지 힘을 하나도 안 뺐다. 이번에는 감독님, 코치님도 ‘이닝 안되겠다?’고 하셨다(웃음). 완공조절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힘 빼고 던졌는데 생각보다 스피드 차이도 없었다. 공격적으로 들어가니까 타자도 당황하고 그런 게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선발진의 체력관리가 필요했던 시점에 자리를 지켜준 김건국의 활약이 반가운 KIA. 김건국도 다시 찾아온 기회가 반갑다. 김건국은 지난 5월 18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타구에 종아리를 맞으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김건국은 “그때는 진짜 너무 아쉬웠다. 자신감을 많이 찾은 상태였고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양의지라는 대단한 타자를 삼진 잡을 수 있는 구위가 된다는 생각으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며 “사실 한 순간이다, 사람한테 잊히고, 떨어지는 게 순간이라서 부상이 아쉬웠지만 ‘할 것은 하자’는 생각으로 베테랑으로서 준비했던 과정이 결과를 얻었다. 갑자기 선발이라는 기회도 찾아왔다. 이닝을 더 많이 가져가서 어린 선수들이 불편한 상황에 안 올라오게 하게끔 하는 게 첫



KIA 타이거즈 투수 최고참 김건국이 공격적인 피칭으로 대체 선발 임무를 완수하며 마운드 고민을 덜어줬다.

〈KIA 타이거즈 제공〉

번째 목표다”고 밝혔다.

자신이 등판한 경기에서 팀이 승리하는 게 김건국의 또 다른 간절한 바람이다.

김건국은 “동료들이 4-5이닝은 던져주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약속은 80% 정도는 지킨 것 같다. 내가 던지는 것도 던지는 거지만 팀이 이기는 게 중요하다. 현종이도 고민했고, 나도 고민하는 게 내가 못 던져도 되지만 팀이 이겨야 된다는 것이다. 팀 승리에 대한 욕심이 크다. 0-2로 뒤진 상태에서 내려왔지만 팀이 이겨줘서 후배들에게 고맙고, 다행이다”라며 웃었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건국이 안정감 있는 활약을 해주면서 이범호 감독은 마운드 운영에 큰 힘을 얻게 됐다.

이범호 감독은 “노경은 선수의 느낌이 있다. 어릴 때 많이 안 던졌다. 팔을 많이 사용 안 해서 스피드가 149까지 나온다. 국내 우투수 중에서도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다. 40살 넘어가도 구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범호 감독은 팀 상황을 고려해 6일 롯데전 선발로 투입하거나 불펜에서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자원으로 김건국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6월 반등의 중심 KIA 전상현 “내가 MVP후보?”



15경기 17.1이닝 평균자책점 2.08·9 홀드…타이거즈 첫 ‘100홀드’

반등에 성공한 전상현(사진)이 6월 MVP 후보에 선정됐다.

KBO가 2일 2025 신한 SOL뱅크 KBO 리그 6월 월간 MVP에 도전할 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투수는 전상현과 함께 롯데 김보아, NC 로건이 이름을 올렸다. 야수에서는 롯데 레이예스, NC 데이비스, 박민우가 후보가 됐다.

전상현은 KIA 6월 반등의 중심에 있었다. KIA가 치른 24경기 중 15경기에 나와 17.1이닝을 소화한 전상현은 평균자책점 2.08을 찍으면서 9개의 홀드도 수확했다.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 가장 많은 홀드를 기록했다.

지난 6월 28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서는 통산 100홀드를 기록했다. KBO리그 19번째 기록. 타이거즈 역사상 첫 100홀드이기도 하다.

“내가 명단에 오르다니 잘못된 것 같다”면서 웃은 전상현은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해도 좋은 것이기는 하다. 6월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아

쉽다. 초반에 너무 안 좋아서 그게 아쉽다. 그걸로 만족 못 한다. 그래도 결과는 괜찮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다”고 이야기했다.

전상현은 “하루 아침에 구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반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좋아졌다”며 “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잘해서 팀도 좋아진 것 같다”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매월 KBO 리그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에게 돌아가는 ‘월간 MVP’는 팬 투표와 한국야구기자회 기자단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팬 투표는 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신한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한 SOL뱅크’에서 진행된다.

MVP 수상자에게는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진다. 또 신한은행의 후원으로 출신 중학교에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200만원의 기부금이 전달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94년 LG 우승 이끈 이광환 전 감독 별세

‘자율 야구’로 1994년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지휘한 이광환 KBO 원로자본이 2일 별세했다.

지병인 폐 질환을 치료하고자 제주도에서 지내던 이 전 감독은 최근 폐렴 증세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 2일 오후 3시 13분께 세상을 떠났다. 향년 77세.

중앙고와 고려대 출신인 이광환 전 감독은 한일은행과 육군 경리단에서 선수로 뛰었고 1977년 모교인 중앙고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1982년 프로 출범과 함께 OB 베어스 타격 코치를 맡은 이 전 감독은 1989년 OB, 1992년 LG 사령탑에 올랐다.

특히 1994년에는 LG의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이끌고 LG ‘신바람 야구’의 전성시대를 열었다.

당시 LG는 ‘신인 3총사’로 큰 인기를 누리던 류지현, 김재현, 서용민과 ‘해결사’ 한대화, 주장 노찬엽 등이 타선을 이끌었고, 투수 쪽에서는 이상훈, 김태원, 정삼흠, 김용수 등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했다.

일본프로야구 세이부 라이온스, 미국프로야구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연수하며 지도자로 선



진 야구를 접한 고인은 한국으로 돌아와 강압이 아닌 선수들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연구하고 훈련으로 메워 성장하는 ‘자율 야구’를 도입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또 한국프로야구 최초의 투수 분업화 체계인 ‘스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선진적인 팀 운영으로 척박한 KBO리그 문화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한화 이글스, 우리 히어로즈 등 프로팀을 지휘하며 KBO리그 통산 608승을 거뒀고, 2010년부터 10년간 순수 생활 체육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야구부 선수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 전 감독은 1995년 제주도 서귀포시에 사재를 털어 야구 박물관을 건립했고 야구 관련 소장품 3천여 점을 모두 기증하는 등 야구인으로서 일생을 헌신했다.

올해 3월 KBO리그 LG의 개막전에서 시구를 한 것이 공식 석상에서 고인의 마지막 모습으로 남았다.

/연합뉴스

전국에 골프장 10개뿐인 나라 에스토니아 ‘일 냈다’

리하르트 테더, 디오펜 출전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인구 137만 명에 골프장이라야 단 10개뿐이다.

세계랭킹에 이름을 올린 프로 골프 선수는 단 2명으로 둘 다 세계랭킹 2000위 밖이다.

아마추어 세계랭킹에도 에스토니아 선수는 달랑 14명만 있다.

그야말로 골프의 변방 중에서도 변방이다.

에스토니아의 ‘간판’ 골프 선수 리하르트 테더(20·사진)는 2일(한국시간) 에스토니아 골프 역사에 새로운 금자탑을 세웠다.

그는 이날 영국 웨스트 랭커셔 골프클럽에서 열린 디오펜 최종예선에서 연장전 끝에 디오펜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테더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북아일랜드의 로열 포트러시에서 열리는 153회 디오펜에 출전

하게 됐다. 에스토니아 국적 골프 선수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골프 대회 디오펜에 출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연장전도 극적이었다. 그는 마지막 18번 홀(파4)을 남기고 상위 5명에게 주는 디오펜 출전권을 거의 확정했다.

하지만 18번 홀(파4)에서 티샷을 페널티 구역으로 날린 그는 2타를 잃고 4명이 2장의 디오펜 출전권을 놓고 다투는 연장전에 끌려 들어갔다.

그런데 그는 18번 홀(파4)에서 치른 연장전에서 두 번째 샷을 홀에 바로 집어넣어 이글을 잡았다.

단 두 번의 샷으로 디오펜 출전권을 확보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91위에 이름을 올린 테더는 “모든 걸 가진 기분이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디오펜에 나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나도 그 자리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가서 디오



폰 출전 준비를 한다는 게 너무 설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국 곳곳에서 치러진 예선에서 전 세계랭킹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와 루카스 허버트(호주), 딘 버미스터(남아프리카공화국) 3명의 LIV 골프선수가 디오펜 출전권을 따냈다.

/연합뉴스